

2018년 9월 12일

#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애플 +2.53% Vs. 마이크로소프트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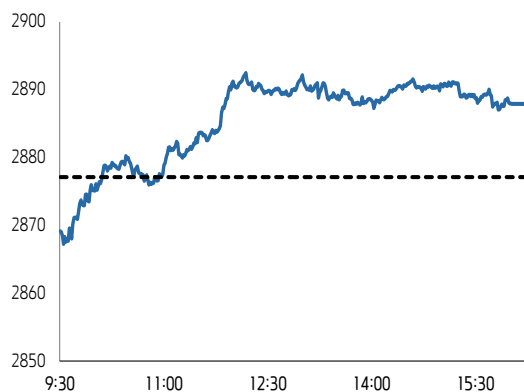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1%

미 증시는 중국이 WTO 에 미국을 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우려로 하락 출발. 그러나 애플(+2.53%)이 목표주가 상향 조정에 힘입어 상승하는 등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자 상승 전환에 성공. 반면 마이크로소프트(-2.90%)이 장중 한때 5.7% 급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과 바이오 업종이 부진하는 등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 유지(다우 +0.44%, 나스닥 +0.61%, S&P500 +0.37%, 러셀 2000 +0.03%)

미 증시는 무역분쟁 우려감이 상존한 가운데 종목별, 업종별 이슈에 따라 변화하는 종목 장세가 펼쳐짐. 3 대 주요 지수는 대형 기술주와 에너지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 애플이 새로운 아이폰 모델 발표를 앞두고 강세를 보이며 주요 지수를 끌어 올림. 특히 일부 투자회사에서 애플에 대한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한 점과 아이폰 가격을 낮출 것이라는 소식도 애플 상승 요인. 더불어 알파벳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FANG 기업들도 애플 상승에 힘입어 투자심리 개선 효과로 강세.

반면, 마이크로소프트(-2.90%)이 장중 한 때 5.7% 급락하는 등 반도체 업종은 부진. 전일 CLSA 애널리스트가 홍콩에서 있었던 투자자 포럼에서 “무역 마찰이 없어도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심각한 하강이 불가피하다” 라고 언급. 특히 “IoT 같은 신기술이 반도체 수요를 회복 시킬 수 있으나, 관련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너무 과도 하다” 라고 주장. 여기에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 또한 “미-중 무역 마찰이 반도체 업체의 수익을 최대 25%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등 업황 부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투자심리 위축. 더불어 RBC가 웨스턴디지탈(-3.63%)에 대해 투자이견 및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점도 반도체 업종 부진 요인. RBC는 “2019년 NAND 는 공급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진 또한 몇 분기 동안 안정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장. 이여파로 나스닥 등 3 대 주요 지수는 상승했으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1% 하락 마감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동락률(%)	Close	D-1	지수	동락률(%)	Close	D-1
KOSPI		2,283.20	-0.24	홍콩恒生		26,422.55	-0.72
KOSDAQ		820.23	+0.50	영국		7,273.54	-0.08
DOW		25,971.06	+0.44	독일		11,970.27	-0.13
NASDAQ		7,972.47	+0.61	프랑스		5,283.79	+0.27
S&P 500		2,887.89	+0.37	스페인		9,284.10	+0.14
상하이종합		2,664.80	-0.18	그리스		692.04	-1.84
일본		22,664.69	+1.30	이탈리아		20,853.84	-0.3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강세

애플(+2.53%)은 새로운 아이폰 공개를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차기 아이폰 가격을 800달러로 낮출 것으로 알려지며 판매 증가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 이었다. 알파벳(+1.27%), 페이스북(+1.07%), 아마존(+2.48%), 넷플릭스(+2.16%) 등 FANG 기업들도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와 애플 강세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 효과로 동반 상승 했다. 엑손모빌(+1.41%), 셰브론(+0.47%), 코노코필립스(+0.45%) 등 에너지 업종은 국제유가 강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반면, 웨스턴디지털(-3.63%)은 RBC가 NAND 가격 하락 우려로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하향 조정 여파로 하락 했다. 인텔(-2.96%)은 오픈하이머가 14nm 공정 제조 능력이 타이트해지면서 TSMC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자 하락세를 이어갔다. 마이크론(-2.90%)은 전일 CLSA와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한 여파로 장중 한 때 6%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파로 브로드컴(-3.35%), AMAT(-1.06%), 램리서치(-1.87%) 등 반도체 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1% 하락 했다. 테슬라(-2.12%)는 노무라가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하락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1.92%	대형 가치주 ETF	+0.07%
에너지섹터 ETF	+2.06%	중형 가치주 ETF	+0.10%
소매업체 ETF	+0.69%	소형 가치주 ETF	+0.01%
금융섹터 ETF	+0.11%	배당주 ETF	-0.08%
기술섹터 ETF	+0.85%	변동성 ETF	-2.93%
소셜 미디어업체 ETF	+1.00%	대형 성장주 ETF	+0.59%
인터넷업체 ETF	+1.14%	중형 성장주 ETF	+0.31%
리츠업체 ETF	+0.06%	소형 성장주 ETF	+0.20%
주택건설업체 ETF	+0.35%	신흥국 고배당 ETF	+0.95%
바이오섹터 ETF	-0.42%	신흥국 저변동성 ETF	-0.02%
헬스케어 ETF	-0.09%	하이일드 ETF	+0.03%
곡물 ETF	-0.99%	물가연동채 ETF	-0.21%
반도체 ETF	-1.25%	Long/short ETF	-0.1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540.06	+0.98%	-1.09%	-1.35%
소재	370.53	+0.19%	+0.53%	+1.76%
산업재	652.77	-0.06%	+1.10%	+4.03%
경기소비재	928.69	+0.82%	-0.30%	+4.09%
필수소비재	556.73	-0.39%	+1.18%	+1.96%
헬스케어	1,064.47	-0.02%	+0.08%	+2.70%
금융	468.80	+0.12%	-0.64%	+2.10%
IT	1,303.24	+0.84%	-1.51%	+1.86%
통신	156.53	+1.08%	+2.80%	+3.03%
유틸리티	273.01	-0.35%	+0.68%	+1.65%
부동산	206.86	-0.07%	+0.14%	+1.8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종목 장세 지속 예상

MSCI 한국 지수는 0.62% MSCI 신흥국 지수는 0.22%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382 계약)에 힘입어 0.50pt 상승한 292.95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23.5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가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했다. 그러나 한국 증시에 영향력이 큰 반도체 업종은 부진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관련 종목 하락을 부추겼다. 이는 CLSA 와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의 반도체 업황 부진 언급과 웨스턴디지털에 대한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하향 조정때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에서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 위축은 불가피하다. 다만, 전일 SK 하이닉스가 장중 한 때 1.7% 상승하기도 했으나 관련 소식으로 상승폭이 축소되며 0.13% 상승에 그치는 등 전일 한국 증시에 일부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는 "러시아와 한국이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에 대해 논의를 재개 했다" 라고 주장한 점은 관련 종목에 대해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요 요소다" 라고 언급 하며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협력을 밝힌 점도 긍정적이다. 또한 애플의 차기 아이폰 모델 가격이 800 달러~900 달러에서 시작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긍정적이다. 이는 아이폰 판매 증가 기대감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불확실성을 감안 적극적인 변화를 보이기 보다는 개별 종목과 업종에 대한 이슈에 반응을 보이는 등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한국 증시도 이러한 종목 장세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미국 증시에서의 종목 변화 요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채용공고 사상 최고치 기록

미국 7 월 채용 공고는 전월(682 만 2 천건)이나 예상치(667 만건)을 상회한 693.9 만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 했다. 그러나 고용자수는 7 월에 5,767 만명으로 변화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고용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7 월 도매재고는 전월 대비 0.6% 증가 했다. 한편, 재고대 판매율은 전월(1.32 개월) 보다 낮아진 1.26 개월로 발표되었다. 이를 감안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 기대감이 높아졌다.

미국 소기업낙관지수는 전월(107.9)나 예상치(108.1) 보다 개선된 108.8 로 발표되었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공급 감소에 힘입어 상승

국제유가는 리비아 국영 석유공사에 대한 테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불어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등급이 상향 되면서 주요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이 폐쇄될 수 있다는 점도 국제유가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EIA 는 단기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산유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더불어 이란의 원유생산도 지난 7 월에 비해 하루 20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하는 등 공급 감소 또한 상승 요인 이었다.

달러화는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지자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하는 등 포함권에서 등락을 보였다. 더불어 최근 이탈리아 이슈가 완화된 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던 유로화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로 전환한 점도 영향을 줬다. 한편, 신흥국 환율은 달러 대비 대부분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무역분쟁 우려감이 일부 완화된 데 힘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국채금리는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 했다. 더불어 3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율이 12 개월 평균인 2.84 배를 하회한 2.68 배에 그치면서 채권가격이 하락한 점도 국채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달러 강세가 주춤해진 데 힘입어 상승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WTO 에 제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 했다. 무역분쟁 우려감이 높아진 여파로 추정한다. 한편,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시장에서 철광석은 1.61%, 철근은 1.68%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69.25	+2.53	-0.89	Dollar Index	95.124	-0.03	-0.33
브렌트유	79.06	+2.18	+1.14	EUR/USD	1.1595	+0.01	+0.11
금	1,202.20	+0.20	+0.26	USD/JPY	111.57	+0.40	+0.14
은	14.153	-0.20	-0.19	GBP/USD	1.3024	-0.02	+1.31
알루미늄	2,044.00	-2.43	-0.87	USD/CHF	0.9726	-0.26	-0.19
전기동	5,859.00	-0.86	+0.76	AUD/USD	0.7116	+0.01	-0.86
아연	2,311.00	-2.94	-4.33	USD/CAD	1.3075	-0.68	-0.86
옥수수	366.75	-0.14	-0.41	USD/BRL	4.1523	+1.65	-0.16
밀	518.75	-1.80	-2.40	USD/CNH	6.8777	+0.13	+0.41
대두	831.75	-1.60	-1.48	USD/KRW	1125.30	-0.27	+0.93
커피	100.45	-0.79	-0.99	USD/KRW NDF 1M	1123.25	-0.56	+0.51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2.977	+4.59	+7.88	스페인	1.464	+1.40	+3.80
한국	2.270	+1.80	-3.90	포르투갈	1.887	+1.30	+3.10
일본	0.115	-0.30	-0.80	그리스	4.064	-10.90	-46.20
독일	0.430	+2.90	+7.30	이탈리아	2.940	+3.40	-7.20